

#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과 구성원 실천 병행돼야”

» 1면에서 계속

## 자원 낭비·안전 문제의 원인

겉으로는 문제없는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폐기물처리 현장에 노출된 종사자들은 배출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음식물이 섞여 다른 폐기물에 묻으면, 염분으로 인해 고형연료 제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녹색사람들 관계자 C씨는 “이런 폐기물들은 재사용할 수 없어 소각장으로 보낸다”며 “이는 매립지의 포화도를 높여 환경문제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본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고형연료 제품 전환율은 다른 위탁대학인 서울대, 건국대, 이화여대에 비해 15%p가량 낮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송형래 주무관은 “다른 대학과의 전환율 차이 만큼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폐기물로 버려져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앙광장 청소노동자 B씨는 봉투를 정리하다가 끼인 병 조각에 손을 베인 동료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로 새벽에 작업하다 보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항상 조심하지만 언제 다칠지 모른다”고 말했다. 올해는 본교 폐기물 속에 있던 부탄가스로 인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C씨는



비우지 않고 버려진 음식가 찢어진 봉투 틈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축제 기간에 사용하고 버린 부탄가스가 분류되지 않았다”며 “건전지나 부탄가스는 파쇄 과정에서 무조건 불이 나기에 분류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쓰레기 분류 시점 앞당겨야

총무부는 현행 방식에서는 직접 분리배출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박용민 총무부 차장은 “품목별 분류작업을 누가 어디서 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작업을 맡을 인력도, 분류할 공간도 없다”며 “결국 집하장에 올려 업체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도 작업 과정에서 폐기물까지 분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호소했

다. 보통 1명의 청소노동자가 건물의 한 층 이상씩을 청소구역으로 맡고 있어 분류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라이시움 청소노동자 A씨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라이시움 뒤편 주차장부터 고려대역 1번 출구 앞까지 청소를 끝내야 해서, 모든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은 시간상 무리”라고 말했다.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상황 해결을 위해선 ‘배출 단계’에서부터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서재순 고려대분회장은 건물마다 층별로 재활용 품목별 수거함을 설치하는 분리배출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모든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인 상황에서

는 청소노동자들이 일일이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의 폐기물처리 방식을 지적하는 학생 단체의 목소리도 있었다. 고려대학교 환경보호기획단 KUSEP 김은진 단장은 “교내에서 분리배출을 실시한 이후 업체에 전달한다면 효율성과 재활용률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변화하는 캠퍼스 “구성원 인식 중요”

학교는 기존 폐기물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 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박용민 차장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교내의 모든 수거 방식을 일괄적으로 바꾸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총무부는 지난 3월부터 인문사회계 캠퍼스 7곳, 이공계 캠퍼스 3곳을 선정해 건물 안에 ‘일회용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해당 수거함은 남은 음료, 빨대, 컵홀더, 컵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품목이 나뉘어 있다. 시행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만6535개의 컵이 수거됐다. 수거한 컵은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생섬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총무부는 수거함을 추가로 늘리고자 했으나, 설치 업체의 수익 문제로 인해 불발됐다. 박용민 차장은 “교내에 설치된 10개의 수거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2학기부터 산학관에 있던 수거함을 학생 유동이 더 많은 우당교양관 1층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현재 본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캠퍼스’ 조성 사업에 지원한 상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4종류 이상 폐기물 분리수거함의 설치 사업 지원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게 된다. 박 차장은 “사업비를 받게 된다면 인문캠, 이공캠에 각각 1곳을 선정해 6종류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사람들 관계자 C씨는 “병, 캔, 음식물 정도만 분류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효과가 크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다. 박용민 차장은 “교내 분리배출 사업이 시행된다면 캠페인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엄남길 연구원 역시 “분리배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어떻게 폐기물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은진 단장은 “교내에 발생하는 분리배출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실천 노력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분리배출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 | 조경준 기자 junalist@ 사진 | 문원준 기자 mondlicht@

## 자유전공학부 제7회 정기학술대회

# 국제사회법 발전에 목소리 높이다



‘KKUN’ 팀과 ‘모멘’ 팀이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 및 제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법’을 주제로 한 자유전공학부 제7회 정기학술대회가 지난달 30일 신법학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4편의 논문 제시와 이에 대한 4편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발표팀이 제시한 논문에 대해 토론팀과 발표팀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주무기화의 규범 체계와 법적 쟁점 및 분쟁해결제도의 검토’, ‘해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국내 인티폴 국제공조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 및 제언’, ‘미등록 이주 아동의 영주 자격·국적 부여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진행했다.

대상을 차지한 ‘KKUN’ 발표팀은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 및 제언’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팀은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인 보호가 중요해져 해당 주제를 선정했다. 현재 로마규정과 이를 보충하는 규범인 ICC 범죄 구성요건은 전시 민간인 살해 규율에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로마규정 제6조와 집단살해죄 협약 제2조는 집단살해죄가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

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KKUN’ 팀은 성립 요건을 완화해 범죄 처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다양성’ 토론팀은 ‘shaw 잡다’ 발표팀이 제시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영주 자격·국적 부여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논문에 의견을 덧붙였다. ‘shaw잡다’ 팀은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법이 미비해 기본권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곧 영주 자격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양성’ 팀의 손호영(자전 행정20) 씨는 “특별체류자격이 부여돼도 국적법상 외국인으로 다뤄진다”며 “이주 아동이 등록 상태가 돼도 여전히 충분히 보호를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발표팀은 이주 아동이 등록 상태가 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대상을 받은 ‘KKUN’ 팀의 이민재(자전 경영21) 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도움을 주려는 수단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의미 있다”며 “이번 기회로 학우들이 법적인 개정 방안을 생각해본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글 | 배연수 기자 ysbae@ 사진 | 문원준 기자 mondlicht@

## 제14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스케치

# 성북로를 세계의 향으로 뒤덮다



3년 만에 개최된 ‘누리마실’에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 맛으로 즐기는 세계 문화 음악으로 하나 된 성북로

선선한 가을바람을 따라 성북로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울시민들은 가족, 연인,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3년 만에 찾아온 ‘누리마실’을 즐겼다. 지난 25일 열린 누리마실은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대화용기에 모든 음식이 제공됐다.

세계 각국의 음식 부스가 성북로를 끝없이 수놓았다. 텍사스 바비큐 부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냄새에 압도돼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요.” 이진우, 최유림 부부는 15분을 기다려 바비큐 한 접시를 겨우 샀다. 기다린 만큼 바비큐의 맛은 일품이었다. 최유림 씨는 “해외를 못 나간 지 3년인데 세계 음식을 즐기니 해외여행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부부가 바비큐를 구매할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후 4시쯤, 텍사스 바비큐 부스는 운영 4시간 만에 완판됐다. 바비큐 부스를 운영한 최동협 씨는 “미국 손님이 고향의 맛이란 말을 해줘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각국 대사관이 운영한 부스도 여럿 있었다. 에콰도르 부스에선 ‘망자의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과파데빵’과 전통 음료인 ‘콜라다 모라다’를 맛볼 수 있었다. 파키스탄 부스에선 파키스탄 명절 음식인 ‘비리야니’를 판매했다. 필리핀 부스를 운영한 빅토르 이슬라엘은 “축제라는 즐거운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체험 부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유일자수’ 부스에서 권승주(남·8) 군은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팔찌 제작 체험을 했다. 김서아(여·8) 양은 ‘피스플래닛’ 부스에서 바다에 버려진 유리로 모빌을 만들었다. 모빌이 바람에 흔들리자 청아한 소리가 퍼졌다. 성북동주민센터 맞은편엔 노란 텐트가 줄을 섰다. 어린이들은 중고장터인 ‘나리장터’에 모여 맞지 않는 옷, 다 읽은 동화책, 직접 만든 목걸이를 팔았다. 윤다원(여·7), 윤창호(남·4) 남매는 가방, 신발, 팔찌, 반지를 팔았다. 남매는 ‘나리장터’에 물건을 팔기 위해 스케치북에 색연필을 칠해 ‘재미있는 가게’, ‘해버린/목걸이 싸요! 싸요!’가 적힌 안내판과 가격표를 전날부터 만들어 선보였다. 노란 텐트에 나란히 앉은 두 남매는 빨간 확성기를 들고 지나가는 또래 아이들을 불렀다. 윤창호 군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손님에게 어울리는 반지를 골라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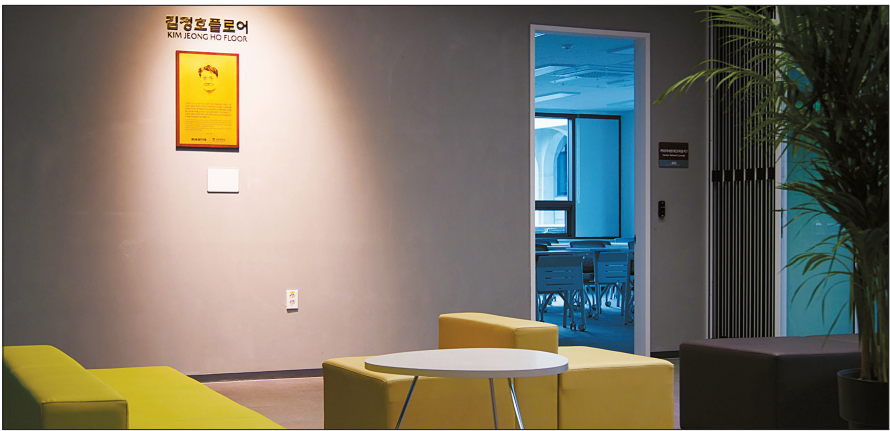
축제에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다. ‘팀 퍼니스트’가 장엄한 콘트라베이스와 신나는 아코디언에 맞춰 재즈 서커스를 선보였다. 요요가 하늘을 날고 무언극엔 웃음꽃이 피었다. 서커스 공연 후엔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흥겨운 브라질 타악에 맞춰 상여가 위아래로 춤췄다. 행진이 끝나자 시민들과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음악에 몸을 맡겼다. 음악은 인종과 나이를 뛰어넘어 성북로를 하나로 만들었다.

조형준 기자 jun@

## 4·18 기념관에 김정은 플로어 준공

본교4·18기념관 김정은플로어 준공식이 지난달 28일 4·18기념관 앞 야외 공간에서 열렸다. 이번 준공식에는 기념관 증축 기부금을 전달한 김정호(무역학과 85학번) 교우와 정진택 총장, 김윤경 학생처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사개요 보고, 커팅식, 인사말 이후 기부자 헌관 제막식과 공간안내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호 교우의 기부로 새롭게 단장한 4·18 기념관은 기존 지하 2개 층, 지상 2개 층에서 3층 공간이 증축되고,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지하 1, 2층은 대강당, 헬스장, 세미나실이 자리하며 지상 1층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링크3.0 사업팀이 사용한다. 지상 2층은 학생지원부와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위치한다. 3층 ‘김정호 플로어’에는 사무실, 상담실, 커리어네트워크라운지가 조성된다.



김정호 교우는 1995년부터 본교에 꾸준한 기부를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부모 이름을 딴 장학기금 6554만 원을, 2017년에는 세상을 떠

난 장모의 이름으로 5억6554만 원을 기부했다.

글 | 박지연 기자 nodelay@ 사진 | 문원준 기자 mondlicht@